

어두움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이 세상에는 어두움의 자녀이든지, 빛의 자녀이든지 둘 중의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어두움의 자녀이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고, 빛의 자녀이면서 어두움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어두움의 자녀도 아니고 빛의 자녀도 아닌 중간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리켜 어두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하였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고 말씀하고 있다. 오직 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만이 세상의 빛이고,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의 자녀들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빛의 자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상태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어두운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개화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움이고 어두움의 자녀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시 107:10),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마 4:16)고 하였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진을 치고, 그 어두움을 즐기며 사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상태이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5)고 하였고, “빛이 세상에 왔도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고 하였다. 여기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것은 빛도 사랑했는데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다.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두움 가운데 살며 어두움을 사랑하는 어두움의 자녀들이다.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죄에 종노릇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빛을 비추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눈, 빛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부터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적으로 소경인 자의 눈을 떠서 보고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곧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로 눈이 떠지고 빛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이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더 이상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고 말씀하신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어두움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고 하였다. 예수님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눈 먼 자들에게 볼 수 있는 빛을 주신 생명의 빛이시다. 그 분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창조적인 역사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후 4:6).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게 빛을 비추고, 어두움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광명의 빛,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성도는 이를테면 각 가정에 있는 전구와 같다. 각 가정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전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전구가 전원인 발전소에 연결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스스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빛을 발하도록 전기를 공급해주는 근원지가 없이 스스로 빛을 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엡 5:8)고 한정지은 것이다. 주 안에서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주님을 떠나서는 비록 세상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빛을 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요 15:4),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원이로부터 항상 끊임없이 생명과 빛을 공급받아야 한다.